

“공정한 탄핵 절차... 민주주의·법치 회복 급선무”

“국가자원 총동원 참사 원인 규명·대책 마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복판에 서 있다.

특히 '12·3 내란'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었고,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국민 전체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졌다.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국헌문란 사건과 최악의 항공기 사고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사고 직후에 제1위원장을 맡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며,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들이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점을 되돌아보고,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계기가 돼야 한다.

12·3 내란으로 어지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내란 동조와 윤석열 비호에만 급급한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때문에 혼란 상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와 외교 등 국정 전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중 남은 1명도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즉시 의뢰해야 한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해 구속수사하고, 특검이 신속히 출범해 내란 범죄자들이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현재도 한시라도 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내란 정권의 종식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철저히 받들 민주정권이 집권해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에 앞장서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하는 선봉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신속한 탄핵심판으로 국격·대외신인도 회복”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무속과 무법에 빠진 불의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격은 수직으로 추락했고, 환율은 1500선을 향해 폭등하고 있다. 한국증시는 나스닥이 33% 오를때 코스닥은 23%가 추락하는 등 1년간 254조가 증발한 '경제위기' 상태다.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고환율, 고물가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인 가운데 자영업 대출은 무려 1064조에 이르고, 현재 역대최악인 18조원이 연체됐다고 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새해 한국경제와 민생은 더 힘들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무책임한 '대행놀이'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한민국 정국은 혼돈 그 자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혼란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길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탄핵 파면하는 것이다. 동시에 빠른 조기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마비된 국정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실추된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3차례나 묵살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 사법적 단죄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공정한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야 한다. 더 이상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재발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내란이나 군사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의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결코 사면이나 감형 등의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뜻한 연대·존엄한 삶 보장’ 새 대한민국을”

기우식 광주비상행동 대변인

'두려움을 극복한 분노'의 감정에는 큰 힘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힘이 분출하고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는 '12·3 내란 사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졌던 계엄령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모여든 이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용기와 분노는 놀랄만한 에너지로 세상을 바꿔 가고 있다. 이 집단의 감정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낡은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을 여는 창조의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2022년 대선은 혐오와 차별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공정과 정의의 논리로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대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남녀를 가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 혐오를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쟁겼다. 윤석열은 승리한 거짓 정의가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2024년, 그 괴물의 난동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깨운 것은 갈라진 이들의 연대였다. 이 연대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멈춰 세우며, 계엄을 해제시켰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농민들이 한 번도 뚫지 못했다는 남태령을 넘게 했다. 이렇게 갈라진 작은 이들의 연대는

파죽지세로 거짓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자들의 성을 무너뜨려 나갔다. 2025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꾼다. 승자독식 경쟁을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서로를 혐오케 하는 나라, 개인의 존엄한 삶과 생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연대로 서로를 보듬는 나라, 인간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존엄한 삶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나를 위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뜨겁게 연대하기를! 두려움을 극복한 우리의 분노가 반드시 이 새로운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과감한 도전으로 새 경제성장 기회 만들어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2024년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은 얼어붙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환경 변화에 더해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공론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610개 지정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입법 추진 △중소기업 현장규제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다.

2025년에도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성 감소, 자국 우선주의 확산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위기가 예상되지만,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역제품 판로 확대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사업재기 지원 △규제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의양을 꼽았다.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올 한 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다.

“진보·보수 재편... 5·18 민주화 정신 계승 노력 필요”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특수지위를 활용해 수사를 방해·지연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위상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다. 계엄 선포로 국가의 위신은 한 순간 추락했고 경제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국민과 사법부를 희롱하는 처사를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검경과 공수처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란의 공모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25년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 이후 조기 대선·재보궐이 치러지는 등 격동의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속칭 '진보·보수 진영'의 재편이다. 예를들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개혁신당·조국혁신당이 기존처럼 별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힘을 합쳐 신당 창당이나 통합 등을 할 것인지다.

지난 윤 정권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복원해야 할 지가 최우선 과제다. 차별금지법 등 평등권 강화와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정치 세력이 재편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사례를 토대로 밝혀진 것은 '민주주의의 숙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가 제대로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고 칭할만한 곳이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경쟁,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가치가 동의·존중되는 보수 세력이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극단적 반공의식을 없애고 5·18민주화 운동 등 여러 민주화 정신을 인정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기억... 내일에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을”

고난영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장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경사로 마무리할 줄 알았던 2024년은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물거품이 됐다. 수많은 이들의 일상을 혼란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내란 동조 세력의 과오에 이어 충격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연말로 치달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온 민족성을 가졌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들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예술은 언제나 고통의 순간에 가장 명확한 길을 비쳤다. 당장의 슬픔과 아픔은 이내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승화돼 전파될 것으로 믿는다. 예술의 형태로 남은 진실은 오래도록 깊은 공감을 받으며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과급력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문화예술이 탄압받아 왔지만, 곳곳이 살아남아 발전을 이뤘다.



이는 문화예술인 한명 한명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다.

그중 연극은 무대 위 다양한 인간군상의 재현을 통해 시대 상황을 대변하는 예술이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내 배우와 함께 호흡하며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고찰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스스로를 치유한다. 이처럼 연극인은 연극을 즐기는 모든 분과 함께 어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내일을 만들어 간다. 역사는 그간 걸여온 발자취로 기록된다.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어제에게, 그리고 내일에게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이유다. 과거의 진실을 잊지 않는 것은 지금껏 문화예술이 해온 일이며, 앞으로 해나갈 일이다.